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2026 사업 구상

사회적 기억과 동시대 문제를 예술로 질문해온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국제 교류와 사회적 사유를 축으로 한 2026년 사업 방향을 밝혔다.

국제레지던시부터 전속작가 개인전까지
우토로 성과 있는 국제교류·기획전 예고

왼쪽부터 일본 우토로평화기념관 외벽에 걸린 생명평화미술행동 작가들의 대형 걸개그림 '피어라 민들레', 우토로 아트 페스티벌 마당극, 기술기 작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전시 전경.

사회적 기억, 예술의 언어로 있다

지난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2025 우토로 아트 페스티벌이 꽂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본 교토 우지시 우토로 일대에서 열렸다. 우토로는 전시동원령 치하 조선인 이주와 그 이후 이어진 차별의 역사가 죽적된 장소로, 이번 행사는 그 역사와 동시대 일본 사회의 배외주의의 문제를 예술로 다시 사유하게 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오프닝 행사에는 1천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국과 일본 50여개 언론사가 행사 전반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일본의 저명한 현대미술 잡지 '미술수첩' 온라인판에서는 예술비평가이자 기획자, 도쿄 지센야대 교수인 야마모토 히로기가 선정한 '올해의 주목할 만한 전시 3선' 중 하나로 소개됐다. 일본 언론 역시 이 행사를 일본 사회

에 내재된 배외주의를 예술적 언어로 재고하는 계기로 조명했다.

페스티벌에서는 걸개그림 '피어라! 민들레'를 비롯해 장소 특성적 퍼포먼스들이 선보였으며 전쟁과 강제동원, 차별이라는 우토로의 형성 배경은 참여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저항과 공존의 메시지로 새롭게 드러났다.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는 올해에도 국제 교류와 사회적 담론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우선 국제레지던시 오픈콜 'SPACE L44'를 새롭게 추진한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중심기에 위치한 복합 예술공간 SPACE L44는 갤러리와 레지던시, 카페와 작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불가리아 간 최초의 공식

예술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와 현대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젠더와 지역 주류화에 대한 고려를 선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전시 기획도 이어진다. 오는 5월 서울 연남동 스페이스L44에서는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가 기획하고 전속작가 박자현이 참여하는 개인전 'Scared Poetry : Red(스스러운 시 : 빨강)'가 열린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선보인 'Scared Poetry : The Unseen'의 연장선에 놓인 전시로, 성매매 집결지를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속작가 기술기의 전시 '히스테리의 언어: 당신은 보고 나는 듣는다'도 광주에서 준비 중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남성

과학자의 시선에 의해 여성의 병으로 규정됐던 '히스테리'를 동시대 예술 언어로 재독해하며, 그 이면에 남겨진 여성 환자들의 분절되지 않은 언어와 목소리에 주목한다.

이밖에도 오는 2월 말 열리는 이미지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 지난해 5·18기념문화센터 전시 '소리 없는 목소리'에 참여했던 김홍빈 작가 개인전 '소년이 온다', 2025 우토로 아트 페스티벌 도록 제작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주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대표는 "지난해에는 예술을 통해 역사와 사회의 상처를 마주하고, 공존과 평화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작업들을 이어왔다"며 "올해 역시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적 사유가 만나는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대동문화재단 7대 운영이사장에 이용범씨



제7대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장에 이용범씨가 선임됐다.

이용범(사진) 신임 이사장은 방산업계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주)프로텍·주옵顿·(주)하이텍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대형 방산 프로젝트의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왔다.

또한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부이사장, 재단 설립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며 메세나 활동과 사회공헌, 문화예술 진흥에 힘써왔다.

이용범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역대 이사장들의 뜻을 이어 여러 이사들과 함께 재단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이취임식은 오는 2월 3일 오후 6시 광주홀리데이인 호텔 별관 연회장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렴 실천 캠페인 등 정례화

전남문화재단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5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성과 향상'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대표 이사의 강한 청렴 의지와 조직 전반의 실천 중

심 청렴 활동이 결합된 결과로, 전년 대비 청렴 수준을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제도 운영 실효성, 청렴 문화 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은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올해 대표이사 주재하에 청렴 실천 다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청렴을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의 날' 운영, 부패 취약 분야 점검, 청렴 실천 캠페인 등을 정례화 하며 청렴 문화를 조성 전반에 확산시켰다.

특히 '청렴의 날'에는 청렴 관련 사례 공유, 주요 규정 안내, 부패 취약 업무 점검 등을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협업 중심의 청렴 인식 제고에 집중했다. /최명진 기자

바흐부터 리스트까지... 피아니스트 최치현 독주회

10일 광주예당 소극장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최치현(사진)이 귀국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주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독주회는 최치현의 음악적 궤적과 피아노 음악사의 흐름을 함께 짚

어보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바흐부터 베토벤, 스크라빈, 리스트까지 바ロック에서 고전, 20세기 초에 이르는 피아노 음악을 아우른다.

공연 전반부는 부조니 편곡 버전 바흐의 '오르간 토카타 C장조(BWV 564)'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인 '제32번 C단조(Op. 111)'다. 후반부는 스크라빈

의 '불꽃을 향하여(Op. 72)', 리스트의 'J. S. 바흐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S. 180)'이 장식한다.

최치현은 맨해튼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연주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President's Award를 받았다.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스페인 칼리지와 조지아 주립대학 교 음악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했다. /최명진 기자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 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

청년여성은 왜 광주를 떠나는가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78호

지역 이탈 원인 진단·정책 과제 제시

광주 청년여성의 수도권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만이 아닌 삶의 질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적 기회를 쫓아 지역을 떠나는 현상 이면에는 교육·문화·주거·안전·건강·사회적 관계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젠더브리프 제78호 '광주지역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과 정책과제'를 통해 광주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 원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라 누적되는 다층적 어려움의 결과로 비춰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사 결과, 광주 청년여성이 체감하는 주요 어려움은 '일자리'가 4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생활' 39.7점, '교육' 36.7점, '주거' 3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관련해 취업자는 '낮은 임금'을, 미취업자는 '내가 찾는 일자리가 없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과도한 스펙 경쟁, 문화생활에서는 공연·전시·콘서트 기회 부족,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여성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미래 불안', '심리·정서적 건강 불안', '주거 및 생활권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주 여건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여성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77.8점이었으나, 타지역으로 떠난 출향 청년여성의 출향지역 만족도는 91.3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청년여성이 생각하는 미래 삶의 핵심 요소로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높은 소득과 자산'이 상위에 꼽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여성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 수혜율이 낮은 청년여성을 고려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설계 전환, 지역 이탈 예방을 위한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이 선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에 주목해 청년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여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매력적인 기회 창출 ▲광주만의 강점을 살린 일상의 안전과 즐거운 기회 확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혁신이 제안됐다.

/최명진 기자